



한국융합인문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일시: 2021.7.2(금) 14:00~16:40

방식: 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

주제: 한국 현대문학과 인간의 삶에 대한 융합적 고찰

주최: 한국융합인문학회

2021 상반기 학술대회 인사말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크와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코로나19 이후 3번째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대면으로 학술대회를 처음 진행할 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곧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 스스로 현실의 상황을 유예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째를 맞는 지금 우리는 비대면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온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어려우리라는 전망은 여전히 비대면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리라는 것과 언제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상존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대면 접촉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대체 되었습니다만 이는 인간성에 대한 경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회의 모토이기도 한 인본주의적 가치의 존중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대이전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면 속수무책으로 감염되거나 감염을 피해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중세에는 전염병을 피해 동굴에서 견뎌내면서 <데카메론>이라는 문학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동굴에 숨어 지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동굴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학술대회는 동굴을 벗어나 자유롭게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학운의 융성을 기원합니다.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 양윤모 드림

기형도 시에 나타난 불안과 절망

발표자: 김종태(호서대)

토론자: 이재훈(건양대)

기형도 시에 나타난 불안과 절망

김종태(호서대)

- I. 서론
- II. 가족사의 결여와 불안의 태동
- III. 질병의 인식과 불구적 사랑
- IV. 죽음의 예감과 절망의 극대화
- V. 결론

[요약]

본고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불안과 절망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II ‘가족사의 결여와 불안의 태동’에서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가족사의 비극과 불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기형도의 가족사적 비극은 크게 두 가지 맥락인데, 그것은 첫째, 가난이고, 둘째, 가족의 죽음이다. 기형도 시의 여러 곳에서는 가난이 형상화되어 있고, 이 가난이 가족(누이)의 죽음과 결합될 때 기형도 시의 절망은 극대화하고 있었다. III ‘질병의 인식과 불구적 사랑’에서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질병과 사랑을 분석하였다. 기형도 시에 나타난 질병은 자기 자신의 병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자신의 질병은 절망 의식을 가속화시켜 그의 사랑을 불구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IV ‘죽음의 예감과 절망의 극대화’에서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의식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수시로 죽음을 예감하는 것은 그의 정서적 특징이다. 기형도는 청춘의 시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작품을 여러 편 남기게 되었고,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첫 시집도 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주제어] 기형도, 시, 불안, 절망, 가족사, 결여, 질병, 인식, 불구, 사랑, 죽음, 예감, 절망, 극대화

I. 서론

본고는 1980년대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활약했던 기형도 시인의 시세계를 연구하려고 한다. 사후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비소로 그의 작품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동안 기형도는 한국의 수많은 시인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를 비극적인 시인으로 명명하게 된 데에는 그의 시의식의 특징과 전기적 삶의 특이성이 작용하고 있다. 어떤 시인은 살아서 수많은 영광과 상찬을 누리다가 죽음과 동시에 작품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시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마찬가지로 상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시인은 살아서는 큰 빛을 보지 못하다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기형도 시인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기형도는 그의 유고 시집에 대한 발문을 쓴 김현이 “그의 시가 충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빨리 되살아나, 그의 육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육체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김현, 1989: 137)¹⁾라고 말한 것처럼 죽어서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지니게 되었다. 김현의 이 해설은 그 상징적 의미로나 비평적 엄정함 등으로 인하여 후속 기형도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형도의 유고시집 출간의 의미를 간파한 정효구는 “그의 시집에서 줄곧 활발하게 움직이는 죽음의 형태들이란 다양한 모습으로 고리를 이루고 일렁인다.”(정효구, 1989: 377)라고 평하였는데, 이 글 역시 기형도 문학에 대한 초기 평설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정과리의 “기형도에게 죽음은 의미의 종말이 아니라 의미의 시원이었다.”(정과리, 1999: 781)라는 논의와 이광호의 “기형도의 시는 기형도라는 실존의 삶과 죽음의 기록으로 읽혀졌다.”(이광호, 1995: 94)라는 논의로 발전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기형도 문학 연구가 김은석 등의 박사 학위 논문(김은석: 2013)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그를 기념하는 문학관²⁾ 등이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것은

- 1) 기형도의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은 유고시집이다. 이 시집은 문학평론가 김현의 안목과 해설에 의해서 출간하게 된다. 김현의 탁월한 혜안이 없었다면 기형도의 시는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잊혔을 수도 있다. 이 시집은 발간 이후 ‘기형도 신드롬’이라고 지칭할 만큼 대량 판매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매김되었다.
- 2) 기형도문학관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268’에 위치해 있으며, 광명시 광명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형도는 1960년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출생하였고, 1964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당시 주소는 경기도 시흥군 소하리)로 이주하여 이곳에서 시흥국민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였으며 이후 신림중학교(서울) 중앙고등학교(서울)를 졸업한 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다.

기형도 시의 문화콘텐츠적 외연을 확장시키는 노력이 될 것이다.

위의 연구 성과들과의 연관 관계에 있는 기형도 시 연구는 그동안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 소외, 슬픔 등에 대한 연구이다. 이 분야에서는 권성훈(권성훈, 2020), 김정배(김정배, 2016), 안지영(안지영, 2017), 오윤정(오윤정, 2011), 임세진(임세진, 2011) 등의 연구를 주목해볼 수 있다. 둘째,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주체, 낭만성, 소외의식, 트라우마, 표상, 인지시학 등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에서는 권혁웅(권혁웅, 2011), 라기주(라기주, 2013), 성현아·이경수(성현아, 이경수, 2108,) 이송희(이송희, 2010), 이승철(이승철, 2015), 이영주(이영주, 2016), 임세진(임세진, 2011) 등의 연구를 주목해볼 수 있다. 셋째, 기형도 시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에서는 김솔(김솔, 2017), 송종원(송종원, 2018), 송지선(송지선, 2015), 전동진(전동진, 2017) 등의 연구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서로 많은 상관성을 지니면서도 변화 발전하였고 특히 죽음의식에 대한 연구 쪽으로 연구 성과가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연구의 양이나 질적인 면으로 보아서 기형도 문학 연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짧은 시력과 적은 작품 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목을 받은 것은 해방 이후 한국현대 시인 중에서 매우 드문 경우이다.

또한 최근 들어 이지원(이지원, 2020), 엄태정(엄태정, 2019), 김청우(김청우, 2019), 오연경(오연경, 2019), 한병인(한병인, 2019)³⁾ 등에 의해서 발표된 연구 성과들은 기형도 문학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기형도 시에 나타난 신체성, 생태의식, 가족상, 주체의 문제, 플롯 구조와 리듬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본고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불안과 절망의 심연을 탐색하여 이 두 가지 시의식이 기형도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그의 작품의 일관성과 총체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내면구조임을 밝힐 것이다.

“불안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 가지는 그 불안 속에서 개인이

3) 이지원의 논문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신체에 초점을 맞춰 기형도 특유의 의식”(이지원, 2020: 276)을 분석하였고, 엄태정의 논문은 “기형도 시에서 인간과 자연 환경이 생태문학의 보고처럼 담긴 생태의식”(엄태정(엄태정, 2019: 80)을 분석하였고, 김청우의 논문은 “기형도의 시에 나타난 가족과 개인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가 생각한 새로운 공동체의 조건”(김청우, 2019: 211) 기형도 시에 나타난 가족과 동체의 문제를 분석하였고, 오연경의 논문은 “기형도의 사후(事後/死後) 주체는 서정시의 동일화에 저항하는 미학적 전략이자, 인간 실존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존재론적 거점이었으며, 나아가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고민하며 시의 윤리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원동력이었다”(오연경, 2019: 128)라고 주장하였고, 한병인은 “시 작품의 플롯 유형과 리듬의 연관성”(한병인, 2019: 199)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질적 비약에 의해 죄를 정립하는 불안이고, 또 한 가지는 죄와 함께 들어와 있는,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불안이다”(키에르 케고르, 강성위 역, 1978:60)라는 키에르 케고르의 말은 불안과 죄의식에 연관성에 대한 고찰인데 기형도의 시에서도 역시 불안 속에 깃든 죄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불안은 기형도 시의 근간이며 근원이었는데 불안은 기형도에게 절망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 기형도의 절망은 “현재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의 개선 가능성”적인 측면과 “앞으로(즉 미래에) 긍정적인 또는 바람직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양돈규, 2017: 510)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절망적이다. 기형도만큼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절망을 형상화한 시인은 드물 것이다.

II. 가족사의 비극성과 불안의 태동

기형도의 비극성은 가족사의 문제로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가족사에 얽힌 비극을 여러 차례에 형상화하였다. 그가 여러 차례 언급한 비극은 무엇인지 그 단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의 사건에 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의 가족사에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그림자는 그의 시세계가 절망적인 내면구조를 지니는 데에 큰 영향으로 미치게 되었다.

그 해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 여름 내내 그는 죽만 먹었다. 올해엔 김장을 조금 덜 해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남푯불 아래에서 수건을 쓰시면서 말했다. 이제 그 애긴 그만하세요 어머니. 쌓아둔 이불을 등을 기댄 채 큰누이가 소리 질렀다. 그런데 올해에는 무들마다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나는 공책을 덮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잠바 하나 사 주세요. 스펀지마다 송송 구멍이 났어요. 그래도 올 겨울은 넘길 수 있을 게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오실 거구. 풍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잖아요. 마늘을 까던 작은누이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지만 어머니는 잠자코 이마 위로 흘러내리는 수건을 가만히 고쳐 매셨다.

-「위험한 가계」 부분(1)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집안이 언젠가 풍비박산이 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기형도 자신의 전기적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로 짐작된다.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든 화자에게 가정이 삶의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것이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삶을 행복하고 안온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집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절망만이 가득하다. 아버지는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졌고, 어머니는 삶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누이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곤 하였다. 이 시는 시종일관 가족사의 비극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긍정도 없고, 미래에 대한 낙관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는 우울하고 불안했을 것이다.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아버지,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머니, 현실을 긍정하지 못하는 누나를 바라보면서 화자는 절망했을 것이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시장에 간 우리 엄마/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엄마 안 오시네//배추잎 같은 발자국 소리 타박타박/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빈방에 혼자 앉드려 훌쩍거리던//아주 먼 옛날/지금도 내 눈시울 뜨겁게 하는/그 시절, 내 유년의 윷묵
-「엄마 생각」 전문

모성의 결핍과 관련된 이 시 역시 비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시는 기형도 시에서 가장 쉬운 작품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슬픔의 의미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모성은 기형도 시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체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누이의 죽음이 기형도가 시를 창작한 최초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시인 스스로의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형도에게 누이는 어머니로 이어지는 모성적 상징체계 속에서 존재한다. 누이의 죽음을 노래한 시인이 다시금 ‘유년 속 어머니의 부재’를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시를 지배하는 것은 “찬밥”, “윷묵” 등 온도의 이미지이다. 모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화자의 몸과 마음 또한 정상적인 온도를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누이와 모성의 부재는 화자의 삶을 싸늘한 “유년의 윷묵”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이다.

그해엔 왜 그토록 엄청난 눈이 내리었는지 그 겨울이 다 같 무렵 수은주 밀로 새파랗게 곤두박질치며 우르르 몰려갔던 폭설 그때까지 나는 사람이 왜 없어지는지 또한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알지 못하였다 한낮의 눈보라는 자꾸만 가난 주위로 몽쳤지만 밤이면 공중 여기저기에 빛나는 얼음 조각들이 박혀 있었다 어른들은 입을 벌리고 잠을 잤다 아이들은 있는 힘 다해 높은 음자리로 뛰어 올라가고 그날 밤 삼촌의 마른기침은 가장 낮은 음계로 가라앉아 다시는 악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밤을 하얗게 새우며 생철 실로폰을 두드리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삼촌의 죽음-겨울 판화4」 전문

이 시에 나타난 삼촌의 죽음은 외삼촌의 죽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촌의 죽음은 영하의 온도와 심각한 폭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삼촌의 죽음을 바라보는 화자는 “그때까지 나는 사람이 왜 없어지는지 또한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화자는 어린아이로서 생사의 원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죽음이 슬프고 불행한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화자는 “밤을 하얗게 새”운 채 삼촌을 불쌍히 여기면서 생철로 된 실로폰을 두드렸다.

누이여/또다시 은비를 더미를 일으켜 세우며/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한 뼉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벌판을/멘발로 산보할 때/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이슬 턴 풀잎새로 영정귀 바늘을/살라주었다//봄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나리 나리 개나리//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찬물로 눈을 행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나리 나리 개나리」 전문

이 시는 기형도의 초기 작품에 들어가는 작품이다. 기형도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신이 시를 쓰게 한 근본적인 동기였다고 말한 바 있다.⁴⁾ 그렇다면 누이의 죽음을 소재로 삼고 있는 이 시는 기형도 시세계의 근간이 되는 작품들 중 한편이 될 것이다. 자아의 죽음은 타인과의 이별이다. 죽음을 맞이한 자아는 더 이상 그 죽음의 슬픔을 서술하거나 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죽음이 완결된 이후의 고통 혹은 상실감은 오로지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자 의무이다. 기형도가 죽은 누이에 대한 시를 쓰게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개나리꽃이 만발하는 봄날이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봄이 왔지만, 화자는 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그것은 누이의 부재와 죽음 때문이다.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는 봄날의 꽃사태와 대조적인 모습이기에 봄의 만개를 목도하는 화자는 그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받아들이게 된다. 누이가 가

4) 기형도는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기형도의 누나는 1975년 5월 16일에 사망했다. 기형도가 16세 되던 해이다. 2살 터울의 바로 누나이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누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기형도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때까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기형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시 창작에 관심을 보였다. 즉 기형도 시의 원천은 비극성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저간 시간 즉 살다 간 시간은 짧은 것이었고 누이가 버리고 간 시간 즉 제대로 살지 못한 시간은 긴 것이었기에 그 죽음은 불행한 요절이었다. 그러한 누이를 추억하는 화자의 기억이 쌓인 고통의 “얼음장”은 뜨거운 안개에 의하며 끊임없이 환기되고 있다. 누이는 다른 세상으로 갔지만 누이가 떠난 이 세상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서 새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이의 죽음 이후에 화자는 시간의 흐름인 세월을 망각하였기에 이 봄의 시간과 화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누이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작은 죽음”은 세계와의 불화라는 “큰 죽음”을 거느리게 된 것이다. 화자가 “찬물로 눈을 행구”면서 “유령처럼 꽃을 꺾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Ⅲ. 질병의 인식과 불구적 사랑

기형도 시에는 강박적 세계인식이 있다. 그는 이 세계의 다양한 형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사물과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이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은 그의 몸과 마음의 쇠약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수시로 많은 약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기형도가 어떤 질병을 지니고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기형도 시에는 질병의 수사학이 숨겨져 있다. 마음의 질병이든 몸의 질병이든 그의 시는 질병의 상징과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 질병은 인간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질병의 관여는 기형도의 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년 시절에 관한 시에 병든 아버지의 모습과 죽은 누이의 모습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면, 성년 이후의 화자가 형상화하는 시에는 시인 자신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내 얼굴이 한 폭 낮은 풍경화로 보이기/시작한 이후, 나는 주어(主語)를 잃고 헤메이는/가지 잘린 늙은 나무가 되었다./가끔씩 숨이 툭툭 막히는 어둠에 체해/반 토막 영혼을 뒤틀어 눈을 뜨면/잔인하게 죽어간 붉은 세월이 곱게 접혀 있는/단단한 몸통 위에,/사람아, 사람아 단풍든다./아아, 노랗게 단풍든다.

-「병」 전문

이 시의 ‘병’을 시인의 전기적 삶과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의 화자는 아픈 사람이다. 화자는 거울 앞에서 낮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 낮은 모습이란 한 마디

로 병든 육체를 가진 모습이다. 병은 마음의 변화와 동시에 육신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변화된 육체를 바라보는 화자는 그 외양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있다. 그저 담담하게 변해버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육체를 침대 위에 집어 던진다/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오래 된 잡동사니들이 일제히 절그럭거린다/이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인가/나는 이곳까지 열심히 걸어왔었다, 시무룩한 낮짜를 보인 적도 없다/오오, 나는 알 수 없다, 이곳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내 정체를 눈치챘을까/그는 탄식한다, 그는 완전히 다르게 살고 싶었다, 나에게도 그만한 권리는 있지 않은가/모퉁이에서 마주친 노파, 술집에서 만난 고양이까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중얼거린다, 무엇이 그를 이곳까지 질질 끌고 왔는지, 그는 더 이상 기억도 못한다/그럴 수도 있다, 그는 낡아빠진 구두에 쭈셔박힌, 길쭉하고 가늘은/자신의 다리를 바라보고 동물처럼 울부짖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여행자」 전문

화자는 지금 여행자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 여행자는 그 육신을 기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화자는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육체를 침대 위에 집어 던”지는 행위를 통하여 육체적 피곤함을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속에 가득 찬, 오래 된 잡동사니들이 일제히 절그럭거린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곤함은 해소되지 않는다. 심지어 주위의 존재물들까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 ‘절그럭거리’는 소리는 서로 닿은 때 혹은 서로 떨어질 때 나는 소리인데 이 소리 역시 불구성을 내포하고 있는 소리이다. “무엇이 그를 이곳까지 질질 끌고 왔는지, 그는 더 이상 기억도 못”할 때에 이르러 화자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혼미함에 다다르게 된다. 결국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고 동물처럼 울부짖는다” 화자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이동의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에 나타난 탄식은 바로 이러한 화자의 극단적인 좌절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른이 돌려도 됩니까?/돌려도 됩니까 어른이?//사랑을 목발질하며/나는 살아왔구나/대보름의 달이여/올해에는 정말 멋진 연애를 해야겠습니다/모두가 불 속에 숨어 있는 걸요?/돌리세요, 나뭇가지/사이에 숨은 꿩을 위해/돌리세요, 술래/는 잠을 자고 있어요/헛간 마른 짚 속에서/대보름의 달이여/온 동네를 뒤지고도 또/어디까지?//아저씨는 불이 무섭지 않으세요?

-「쥐불놀이-겨울 판화5」 전문

이 시에도 자신에 대한 자조적 인식이 뚜렷이 나타난다. 화자는 아이들 중심인 쥐불놀이의 현장에서 그 놀이의 기구를 “어른이 돌려도 됩니까”라고 질

문한다. 화자는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가 자신이 경험해 온 사랑의 행위와 닮았음을 직감한다. 화자에게 결국 사랑은 놀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놀이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 성취를 희구하는 쥐풀놀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자신이 경험한 사랑의 놀이는 고통을 감내해하는 동시에 완전성에 다다르지 못하는 불구적 행위였던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목발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사랑이 지닌 불구적 요소에 대한 인식을 지녔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잘 있거라, 꺾었던 밤들과/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잘 있거라,/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잘 있거라,/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절망들아.//장님처럼/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가엾는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전문

이 시의 화자는 실연한 사람이다. 위의 논의에서 기형도 시의 화자는 불구적 욕신에 대한 인식을 지녔다는 분석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화자가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이 시는 서두부터 강한 절망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사랑을 잃은 화자는 자신의 사랑과 이어진 환유적 존재들에 대해서 “잘 있거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별을 고한다. “꺾었던 밤들”,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절망들”은 화자의 사랑과 관련된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부정적인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화자는 사랑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장님처럼 눈을 감은 채 빈 집에 자신의 내면을 유폐시켜 버린다. 사랑을 빈집에 가두어 버린 화자는 빈집 앞을 오래 서성일 것이며 이 빈집을 쉽게 떠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망설임과 주저함의 정서는 사랑의 고통을 더욱 극대화시키게 된다. 이는 도피적이고 자조적인 행위로 해석된다. 화자가 이러한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통하여 사랑의 시간으로부터 도망쳐 버리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시간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행복해야 할 사랑 행위가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야 했는지에 관한 이유는 이 시 어디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시가 보여준 사랑은 시종일관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 고통의 과정과 원인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시의 내용은 독자들에게 불친절하다. 이 시의 사랑이 다소 느닷없기까지 하지만 이 시는 기형도 시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아 한국 사랑시의 한 표준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독자들이 이 시가 보여준 사랑의 절망성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이다.

IV. 죽음의 예감과 절망의 극대화

기형도 시에는 죽음을 예감하는 작품들이 많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왜 죽음을 예감하는 시를 써야 했는지는 그가 지닌 비극적인 세계 인식에서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종족 본능으로 자손을 번식시킬 의욕을 불태워야 할 20대의 나이에 죽음 친화적이거나 죽음을 각오하는 시는 쓴 기형도는 독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기형도 시의 죽음의식은 길의 이미지와 이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길 이미지를 중심으로 펼쳐진 죽음의식과 절망의식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기형도의 죽음과 절망은 많은 부분 길 위에서의 방황과 연결된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련다./마른 나무에서 연거푸 물방울이 떨어지고/나는 천천히 노트를 덮는다./저녁의 정거장에 검은 구름은 멎는다./그러나 추억은 황량하다, 군데 군데 쓰러져 있던/개들은 황혼이면 처량한 눈을 껌벅일 것이다./물방울은 손등 위를 굴러다닌다, 나는 기우뚱/망각을 본다, 어찌다가 집을 떠나왔던가/그것으로 흘러가는 길은 이미 지상에 없으니/추억이 덜 갠 개들은 내 딱딱한 손을 깨물 것이다./구름은 나부킨다./얼마나 느린 속도로 사람들이 죽어갔는지/얼마나 많은 나뭇잎들이 그 좁고 어두운 입구로 들이닥쳤는지 내 노트는 알지 못한다./그 동안 의심 많은 길들은/끝없이 갈라졌으니 혀는 흥기처럼 단단한다./물방울이여, 나그네의 말을 귀담아들어선 안 된다./주저앉으면 그뿐, 어떤 구름이 비가 되는지 알게 되리/그렇다면 나는 저녁의 정거장을 마음속에 옮겨놓는다./내 희망을 감시해온 불안의 짐작들에게 나는 쓴다./이 누추한 육체 속에 얼마든지 머물다 가시라고/모든 길들이 흘러온다,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

-「정거장에서의 충고」 전문

이 시의 앞부분에는 “희망을 노래하련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완전한 역설적 발언이다.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그것도 간단하거나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지독하고 끈질긴 절망이다. 마침내 시인은 아직은 젊은 몸을 지닌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강한 부정이다. 미래의 꿈은 키우지 않은 채 스스로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봉인해 버린 화자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시간뿐이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너희 흘러가버린 기쁨이여/한때 내 육체를 사용했던 이별들이여/찾지 말라,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이제 해가 지고 길 위의 기억은 흐려졌으니/공중엔 희고 둥그런 자국만 뚜렷하다/물들은 소리 없이 흐르다 굳고/어디선가 굶주린 구름들은 물려왔다/나무들은 그리고 황폐한 내부를 숨기기 위해/크고 넓은 이파리들을 가득 피워냈다/나

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돌아갈 수조차 없이/이제는 너무 멀리 떠내려온 이 길/구름들은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눈을 감아도 보인다/어둠 속에서 중얼거린다/나를 찾지 말라..... 무책임한 탄식들이여/길 위에서 일생을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여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전문

이 시는 길 위에서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는 자아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 시는 “중얼거리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뚜렷한 이미지도 없고 구체적인 스토리텔링도 존재하지 않은 채 그저 길 위에서의 혼돈과 고독을 형상화하고 있다. “흘러가버린 기쁨” “내 육체를 사용했던 이별”에서 보이듯 화자는 지금 실연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그는 새로운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자세와 방법을 상실한 채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하는 소극적인 자세만을 지향하고 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화자가 “돌아갈 수조차 없이/이제는 너무 멀리 떠내려 온 이 길”위에서 있다는 것이다. 즉 화자는 나아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외통수의 길에 있다는 자아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 지점에서 “길 위에서 일생을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 주는 절망감은 매우 심각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결국 시인은 죽음의 그림자를 가득 드리우고 있는 빗물과 만나게 된다.

간판들이 조금씩 젖는다/나는 어디론가 가기 위해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둥글고 넓은 가로수 잎들은 떨어지고/이런 날 동네에서는 한 소년이 죽기도 한다/저 식물들에게 내가 그러나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언젠가 이곳에 인질극이 있었다/범인은 「휴일」이라는 노래를 틀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자신의 목을 긴 유리조각으로 그었다/지금은 한 여자가 그 집에 산다/그 여자는 대단히 고집 센 거위를 기른다/가는 비.....는 사람들의 바지를 조금 적실 뿐이다/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음성은 이제 누구의 것일까/이 상점은 어찌다 간판을 바꾸었을까/도무지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고/우산을 쓴 친구들은 나에게 지적한다/이 거리 끝에는 커다란 전당포가 있다, 주인의 얼굴은/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시간을 빌리러 뒤통 뒤통 그곳에 간다/이를테면 빗방울과 장난을 치는 저 거위는/식탁에 오를 나날 따위엔 관심이 없다/나는 안다, 가는 비.....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며/누구도 죽음에게 쉽사리 자수하지 않는다/그러나 어찌라, 하나뿐인 입들을 막아버리는/가는 비.....오는 날, 사람들은 모두 젖은 길을 걸어야 한다

-「가는 비 온다」 전문

이 시는 비 내리는 골목길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시의 소재인 비는 봄소식을 알리는 맑고 상쾌한 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죽음

을 예감시키는 그로테스크한 소재이다. 화자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기 위해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방황하는 중이다. 아무런 목적성을 지니지 않은 걸음은 느리게 움직였을 것이다. 비를 피할 공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주체는 더 많은 비에 젖어야 할 것이다. 이 시의 공간 역시 시인에게 죽음의 좌표와 상징을 주고 있다. 화자는 이곳에서 죽은 소년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 일어났던 인질극과 범인이 부르던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 나아가 화자는 죽은 사람의 음성을 상상하며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이 질문은 무망한 것인 동시에 유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으나 죽음이 부재로 인해 더욱 강렬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질문은 유의미한 것이다. 비가 내리는 이 길은 화자에게 죽음의 서사를 환기시키고 죽음의 상징과 이미지를 기억하게 하는 음울한 공간이다. 이 시에는 “가는 비”라는 구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시인은 여기서 “가는”이라는 말 자체에 중의적 의미를 내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시의 끝 부분에 나오는 “가는 비……오는 날”이라는 구절에서 확인된다. 독자는 처음에는 “가는”의 의미를 ‘가늘 세(細)’ 정도로 읽었을 것이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 의미를 ‘갈 거(去)’의 의미로도 읽게 된다. 후자의 의미를 “가는 비”를 읽을 때에 “가는 비”에는 죽음의 이미지가 도사리게 된다. 사람이 죽는 일을 ‘돌아가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돌아가다’는 말은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의미이다. “가는 비”를 돌아가는 비로 해석할 때, “가는 비”는 죽음을 연상시킨다.

문을 열고 사내가 들어온다/모자를 벗자 그의 남루한 외투처럼/회곳회곳한 반백의 머리카락이 드러난다/뺨격이는 나무의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밀어넣고/그는 건강하고 탐욕스러운 두 손으로/우스꽝스럽게도 작은 컵을 움켜쥔다/단 한번이라도 저 커다란 손으로 그는/그럴듯한 상대의 목덜미를 쥐어본 적이 있었을까/사내는 말이 없다, 그는 함부로 자신의 시선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한 곳을 향해 그 어떤 체험들을 착취하고 있다/술한 사건들의 매듭을 풀기 위해, 얼마나 가혹한 많은 방문객들을/저 시선은 노려보았을까, 여러 차례 거듭되는/의혹과 유혹을 맞본 자들의 그것처럼/그 어떤 육체의 무질서도 단호히 거부하는 어깨/어찌 보면 그 어떤 질투심에 스스로 감격하는 듯한 입술/분명 우두머리를 꿈꾸었을, 머리카락에 가리워진 귀/그러나 누가 감히 저 사내의 책임을 뒤집어쓰랴/사내는 여전히 말이 없다, 비로소 생각났다는 듯이/그는 두툼한 외투 속에서 무엇인가 끄집어낸다/고독의 완강한 저항을 뿌리치며, 어떤 대결도 각오하겠다는 듯이/사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얼굴 위를 걸어다니는 저 표정/뺨격이는 나무의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밀어넣고/사내는 그것으로 탁자 위를 파내기 시작한다/건강한 덩치를 굵힌 채, 느릿느릿/그러나 허겁지겁, 스스로의 명령에 힘을 넣어 가며//나는 인생을 증오한다

- 「장미빛 인생」 전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토록 강한 증오를 피력한 한국현대시인은 없는 것 같다. 사실 이러한 자기 부정과 자기 증오의 시학은 시인에게나 독자들에게나 나아가 시인과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에게나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시인은 독자와 시대를 의식하지 않은 채 시를 쓰기도 한다. 이 시는 어느 “사내”로 등장하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많다. 여하튼 사내는 문을 열고 이 공간으로 들어왔고 다양한 행동을 펼치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내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것 같기도 하고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다른 존재자인 것 같기도 하다. 사내는 “그 어떤 육체의 무질서도 단호히 거부하는 어깨/어찌 보면 그 어떤 질투심에 스스로 감격하는 듯한 입술/ 분명 우두머리를 꿈꾸었을, 머리카락에 가리워진 귀”로 형상화될 정도의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를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못한 채 완강한 고독을 즐기고 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인 “나는 인생을 증오한다”는 이 시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다. 이 구절은 형상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범하고 단조롭기까지 한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심각한 내면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구절은 수많은 기형도의 시 작품들이 도달한 주제의식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형도는 이 한 구절의 의미가 자신을 해석하는 데에 설득력을 줄 수 있도록 혹은 이 한 구절의 의미가 청춘의 무책임한 치기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품들을 쓰고 수많은 언어 수사를 동원하였던 셈이다.

V. 결론

본고는 기형도 시인의 시세계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기형도는 짧은 시력을 통해서 매우 크고 강렬한 영향력을 끼친 시인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사후 30년 이상 지났으니 그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고는 기형도 시의 핵심인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천착함으로써 그의 시의 심연은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Ⅱ(본론1) ‘가족사의 결여와 불안의 태동’에서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가족사의 비극이 절망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가족사적 비극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난이고, 둘째는 가족의 죽음

이다. 기형도 시의 여러 곳에서는 가난이 형상화되어 있고, 이 가난이 누이의 죽음과 결합될 때 기형도 시의 절망은 극대화되고 있었다.

Ⅲ(본론2) ‘질병의 인식과 불구적 사랑’에서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질병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기형도 시에 나타난 질병의 인식은 사랑의 비극성을 극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타인의 질병에 관하여 형상화한 작품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은 절망 의식을 가속화시키는 동인일 것이다.

Ⅳ(본론3) ‘죽음의 예감과 절망의 극대화’에서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의 예감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0대의 후반인 시인이 이토록 강하게 죽음을 예감하는 것은 그의 정서적 특징이다. 기형도는 청춘의 시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작품을 여러 편 남기게 되었고,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첫 시집도 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그의 첫 시집은 유고시집이 되고 만다.

기형도 시인의 시는 그의 죽음과 함께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관점을 지닌 그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될 것이고 기형도 시의 핵심인 불안과 절망에 관한 후속 연구도 더 많이 발표될 것이다. 기형도 시의 핵심을 불안과 절망으로 생각하는 후속 연구자에게 본고가 작은 도움이 라도 되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 기본자료

기형도. 2017.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GI, Hyoung-do. 2017. a black leaf in the mouth. Munhakgwajiseongsa.]

기형도. 2019.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문학과지성사. [GI, Hyoung-do. 2019. Mumble on the road. Munhakgwajiseongsa.]

기형도 전집 편집위원회 편. 1999.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The editorial board of Gi, Hyoung-do's complete collection. 1999. Gi, Hyoung-do's complete collection. Munhakgwajiseongsa.]

○ 논문 및 단행본

권성훈. 2020. 시인의 죽음과 영웅 신화의 조건들 - 기형도론. 계간 시작, 19, 208-221. [KWON, Sung-Hoon. 2020. The death of a poet and conditions of heroic mythology. Quarterly Sizak 19, pp. 208-221.]

권혁웅. 2011. 기형도 시의 주체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4, 65-88. [KWON, Hyeock-Woong. 2011. The Subject in Gi, Hyoung-do's poems. Journal of Korean Literary Criticism, 34, pp. 65-88.]

김솔. 2017.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기형도 시 연구. 어문논총, 20, 81-110. [KIM, Sol. 2017. The study of Hyeong-do Ki's poetry in the context of sociology. Eomunnonchong(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 pp. 81-110.]

김은석. 2013. 기형도 문학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228 [KIM, Eun-seok. 2013. Study of GI, Hyung-do's Poetry. Jungang University, pp. 1-228.]

김정배. 2016. 기형도 시의 메멘토 모리 양상.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17(1), 73-107. [KIM, Jeong-Bae. 2016. Memento Mori aspects in Gi, Hyung-do's Poetry. Wonkwang Journal of Humanities, 17(1), pp. 73-107.]

김청우. 2019. 기형도 시에 나타난 가족상과 관계성에 대한 시적 통찰.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20(2), 211-240. [KIM, Chung-Woo. 2019. Image of Family in Gi Hyeong-do's Poem, and Poetic Insight of

Relationships. Wonkwang Journal of Humanities, 20(2), pp. 211-240.]

라기주. 2013. 기형도 시에 나타난 트라우마 양상-‘위험한 가계·1969’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40, 53-83. [LA, Gi-Ju. 2013. A Study on the Patterns of Trauma in the Poetry of Gi Hyeong-do - With a focus on “The Dangerous Lineage·1969”-. The Society Of Korean Modern Literary Criticism, 40, pp. 53-83.]

성현아, 이경수. 2018. 기형도 시에 나타난 입의 표상과 그 의미. 한국시학연구, 56, 55-87. [SUNG, Hyun-Ah. LEE, Kyung-soo. 2018.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Mouth” and Its Meaning in Gi Hyeong-do’s Poetry. The Korean Poetics Studies, 56, pp. 55-87.]

송중원. 2018. 기형도 시에 나타난 시대적 징후. 인문학연구, 30, 121-151. [SONG, Jong-Won. 2018. Signs of the Times in Ki Hyeong-do’s Poetry. Study of Humanities, 30, pp. 121-151.]

송지선. 2015.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의 로컬리티 연구. 국어문학, 60, 267-288. [SONG, Ji-Seon. 2015. A Study on the Locality of Bed Town in Gi Hyeong-do's Poetr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0, pp. 267-288.]

안지영. 2017. 공감의 윤리와 슬픔의 변증법-기형도 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4, 305-336. [AHN, Ji-Young. 2017. Ethos of co-feeling and Dialectic of sorrow -Focusing on Ki Hyeong-do’s works -. hangughakyeongu, 44, pp. 305-336.]

양돈규. 2017. 심리학 사전. 박영사. [YANG, Don-kyu. 2017. Dictionary of Psychology. Parkyoungsa.]

엄태정. 2019. 기형도 시에 나타난 생태의식. 문학과환경, 18, 59-84. [UHM, Tae-Jung. 2019. Ecological Consciousness in Poetry of Gi, Hyung-Do. Literature and Environment, 18, pp. 59-84.]

오연경. 2019. 기형도의 사후 주체와 거리두기 전략. 한국시학연구, 58, 127-153. [OH, Youn-Kyung. 2019. The Subject after Event/Death and Distancing Strategy in Gi Hyeong-do. The Korean Poetics Studies, 58, pp. 127-153.]

오윤정. 2011.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과 몸. 한국문예비평연구, 34, 181-204. [O, Yoon-Jung. 2011. 'Death and body' theme in Kee Hyungdo's poetry. The Society Of Korean Modern Literary Criticism, 24, pp. 181-204.]

이광호. 1995. 환멸의 신화. 민음사. [LEE, Kwang-Ho. 1995. Myth of Disillusionment. Mineumsa.]

이송희. 2010. 인지시학적 시각으로 본 기형도 시세계. 현대문학이론연구, 40, 115-135. [LEE, Song-hee. 2010. Gi, Hyung-do's Poetic World from the Cognition Poetry's Point of View. The Journal Of Literary Theory, 40, pp. 115-135.]

이승철. 2015. 기형도 시 안개의 인지 의미 고찰, 국어문학, 59, 255-280. [LEE, Seung-chul. 2015. Cognitive Meanings Study on 'Fog' of Hyeong-do Ki.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9, pp. 255-280.]

이영주. 2016. 기형도 시의 낭만적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LEE, Young-joo. 2016. A Study on the Romantic Characteristics in Gixmr Hyungdo's poetry. A doctoral dissertation at Myongji University.]

이지원. 2019. 기형도 시와 신체화된 의식-메를로-퐁티의 신체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80, 271-304. [LEE, Ji-Won. 2019. Ki Hyeongdo's poetry and the "physicalized consciousness"-Focusing on the physical phenomenology of Merleau-Ponty. The Journal of Lang. & Lit., 80, pp. 271-304.]

임세진. 2011. 기형도 시에 나타난 소외 이미지 연구. 겨레어문학, 47, 227-257. [LIM, Se-Jin. 2011. A Study on the Alienation Image in the Ki, Hyeong-do's Poetry. Journal of Korean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47, pp. 227-257.]

전동진. 2007. 기형도 시의 시간양상과 주제의식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1, 233-261. [JEON, Dong-Jin. 2007. A study on the time-aspects and the motif-consciousness in Gi, hyoungdo's poems.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11, pp. 233-261.]

정과리. 1999. 죽음 옆의 삶, 삶 안의 죽음 - 기형도 전집에 부쳐. 문학과사회, 12, 779-807. [JUNG, Gua-Li. 1999. A life next to death, death in life. Literature and Society, 12, pp. 779-807.]

정우진. 2013. 기형도 시 연구-직유와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JUNG, Woo-Jin. 2013. The study of Gi, hyoungdo's poems-centered on simile and algorithms. A doctoral dissertation at Gachon University.]

정우진. 2013. 기형도 시에 내재한 기독교적 요소와 시적 전개. 한국시학

연구, 38, 271-295. [JUNG, Woo-Jin. 2013. Christian Elements and Poetic Development Inherent in Poems of Ki, Hyeong Do. The Korean Poetics Studies, 38, pp. 271-295.]

정우진. 2018. 기형도의 겨울 관화 연작 연구-의도와 의의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8, 327-358. [JUNG, Woo-Jin. 2018. A study on a series of 'Winter Print' by Ki, Hyung-do : focus on significance and intention. Asia Cultural research, 48, pp. 327-358.]

정월향. 2008. 기형도 시의 환유기법 연구. 문창어문학, 45, 207-244. [JUNG, Wol-Hyang. 2008. A Study on Metonymy in the Poems of Gi Hyeong-d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45, pp. 207-244.]

정효구. 1989. 서평 죽음이 살다 간자리: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작가세계, 1, 376-384.

[JEONG, Hyo-Gu. 1989. A book notice- seat to live in death: Gi Hyeong-do [a black leaf in the mouth]. Writer's World, 1, pp. 376-384.]

조병춘. 2003. 기형도 시 연구. 새국어교육, 65, 394-409. [CHO, Byung-Cheon. 2003. A Study of the Gi Hyeong-do's poems. New Korean Education, 65, pp. 394-409.]

한병인. 2019. 기형도 시의 플롯 구조와 리듬의 연관성 연구. 비평문학, 71, 199-228. [HAN, Byeong-In.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ot and Rhythm of Gi Hyeongdo's Poetry. Literary Criticism, 71, pp. 199-228.]

황효일. 2001. 거리의 시인: 기형도에 대하여. 북악논총, 18, 33-46. [HWANG, Hyo-Il. 2001. a street poet: about Gi Hyeong-do. Bukaknonchong, 18, pp. 33-46.]

홍용희. 2014. 타자의 윤리학과 주체성의 지평-기형도 론. 한국시학연구, 41, 339-362. [HONG, Yong-Hee. 2014. The ethics for other people and prospect of subjectivity. The Korean Poetics Studies, 41, pp. 339-362.]

○ 번역서 및 외국 논저

키에르 케고르. 강성위 역. 1978. 불안의 개념/죽음에 이르는 병. 동서문화사. [Kierkegaard. KANG, Seong-wi trans. 1978. Notion of Anxiety/Illness Leading to Death. Dongseomunhwasa.]

[ABSTRACT]

Anxiety and Despair in Ki Hyeong-do's Poem

This paper discussed Ki Hyeong-do's poem. Ki Hyeong-do died young, but he is an important poet in modern Korean history. This paper studies the core of Ki Hyeong-do's poetry, focusing on anxiety and despair.

'1. Lack of Family history and Beginning of Anxiety' analyzed the tragedy of family history in Ki Hyeong-do's poem. The tragedy of Ki Hyeong-do's family history is first, poverty, second, family death. When poverty and death combine, Ki Hyeong-do's despair grows even greater.

'2. Recognition of Diseases and Crippled Love' analyzed the disease and love in Ki Hyeong-do's poem. Ki Hyeong-do's poem's disease and love contain tragedy. Especially the poet's Diseases increased the sense of despair.

'3. Premonition of Death and Maximizing of Despair' analyzes death in Ki Hyeong-do's poem. Ki Hyeong-do created many works about death. Ki Hyeong-do dies suddenly at a young age.

The study of Ki Hyeong-do is currently progressive.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core of Ki Hyeong-do's Poem is anxiety and despair. I look forward to subsequent researchers working deeper.

* Key Words : Anxiety, Despair, Ki Hyeong-do, Poem, Lack of Family history, Beginning of Anxiety, Recognition of Diseases, Crippled Love, Premonition of Death, Maximizing of Despair.

<기형도 시에 나타난 불안과 절망> 토론문

이재훈(건양대)

<기형도 시에 나타난 불안과 절망>은 기형도의 전기적 사실과 시의 주제적 특성을 불안과 절망의 관점에서 파악한 논문이다. 기형도는 한 권의 유교시집만을 남긴 시인이지만, 학술논문에서부터 학위논문까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온 시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주제, 낭만성, 소외의식, 트라우마, 표상, 인지시학, 신체성, 생태의식, 가족상, 주체의 문제, 플롯 구조와 리듬 등 다양한 연구가 제출되고 있다.

논문은 기형도의 불안과 절망의 배태지점을 가족사, 질병, 죽음의식 등으로 나누어 잘 분석하고 있다. 기형도의 가족사는 그의 시뿐 아니라 에세이를 통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누이의 죽음이 가져다준 심리적 충격은 시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겨졌다. 즉 가난과 누이의 죽음이 시인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시인의 질병까지 덧입혀져 불안과 절망의식이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질병과 불구의 사랑을 통한 불안과 절망은 타당한 논의이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기형도의 사랑에 대한 전기적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고구이다. 기형도는 시뿐 아니라 에세이나 소설까지 여러 글을 남겼는데 이러한 글에서도 불구의 사랑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다.

기형도의 절망의식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예민한 감성과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형도의 불안과 절망의 원천이 기형도 개인뿐 아니라 당시 사회나 기형도의 직업(신문 기자)에서 찾아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다.

해방 이후 북한의 토지개혁과 소설적 형상화
- 이태준 『농토』를 대상으로 -

발표자: 양윤모(극동대)

토론자: 오양진(추계예대)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과 소설적 형상화

-이태준의 『농토』를 대상으로

양윤모(극동대)

1. 서론

『농토』(1947. 6)

월북한 이태준의 소련 기행이후 첫 발표한 장편소설
노비출신인 '역쇠'를 통해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을 형상화

한정된 땅과 소수의 지주로 인한 폐단 - 봉건사회의 구조적 문제
주인과 노비, 지주와 소작인, 고리대금업자

톨스토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

지주-소작인의 관계 - 조선시대 및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더욱 강화, 고착화

북한(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토지개혁

- 광복이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
- 1946년 3월 5일을 기하여 북한 전역에서 실시 3월말 완료
-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

『농토』의 서술방법

역쇠의 의식성장 과정

- 노비의 아들인 '역쇠'가 노비에서 소작인, 농업노동자를 거쳐
- 해방이후 농민대표의 일원이 되어 토지개혁의 주도세력으로 성장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역쇠의 의식 변화와 토지개혁의 당위성 형상화

- 이분법적 대립구도 속에서 역쇠의 의식 변화
- 갈등이 획일화되는 과정을 통해 주제 의식을 구현

2. 이분법적 구조와 갈등의 단순화

(1) 고귀한 탄생과 비천한 죽음

윤판서댁 며느리의 출산과 윤판서댁의 노비인 억쇠 어머니 팔월이의 죽음이 교차

- 며느리의 출산을 앞두고 주인마님은 사경을 헤매는 노비는 안중에 없었음
- 노비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부정을 타지나 앓을까하는 걱정
- 노비의 병세나 치료는 안중에도 없었음
- 오히려 천서방과 억쇠에게 아내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에도 울음 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엄명만 내릴 뿐임.

역쇠 아버지는 죽는 사람 불쌍한 것이나 저 홀아비 될 걱정보다도 주인댁 귀한 며느님 몸 푸시는데 행여 무슨 부정이나 끼쳐 드릴까 보아 그것부터 겁이 난다.

그러나 사십 평생 약이라고는 피마자 기름 아니면 소금물밖에 먹어 보지 못하였고 이번에도 호림 녹인 물 두어 모금 마셔 본 것만으로 병세 도지는 대로 몸을 맡겨 버린 팔월이는 다만 '돌림'이거니 할 뿐 무슨 병인지 알아볼 필요 없이, 한 마리의 짐승이나 혹은 생사를 초월한 성인(聖人)처럼 묵묵히 죽음에 들고 말았다.

내려가서 나릿님께 손주님 보셨다구 순산이라구 여쭙라. 그러구 같은 밤이라두 팔월이년은 자정 전에 갔으니까 날짜가 다르구 시신두 자정 안으로 내갔으니 안심하시라구. 그러구 너이 부자는 삼칠일 지나두룩 올려 오지 말구 게 있거라.”

(2)노비신분에 대한 역쇠의 자기부정

역쇠는 자신도 노비이지만 노비인 부모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

애든 어른이든 시도 때도 없이 불리워지는 이름에 굽실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를 부끄러워함

비인격적 대우를 받더라도 노비로 태어났으니 주인댁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부모

역쇠는 어미의 죽음을 대하는 주인집의 대우에 야속해하는 한편 그러한 현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반항의 시선을 보냄

역쇠는 울기는 고사하고 죽은 어미와 이런 꼴의 아버를 발길로 지르거나 할 것처럼 새파랗게 노려보는 눈이었다.

어머니의 시신과 아버지를 발길로 찰 것처럼 노력하는 억쇠의 태도

원망의 대상을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하지만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정의 자세는 결국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기 부정

노비와 주인이라는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억쇠는 계급구조의 모순을 인식

(3)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가재울에 내려온 억쇠는 제3자의 입장에서 시골 풍경이 평화스럽다고 낭만적으로 인식

주인집의 권세가 노비에게까지 미치는 현상에 적응 - 소작인들의 융숭한 대우

추수철 소작인의 비애를 직접 목격하면서 땅 없는 농민의 현실 인식함

*억쇠는 아까 권생원이 미웠던 것처럼 주인댁 아씨나 나릿님이 미워졌고 아까 권생원의 벗가
마니를 져나르던 삼포지기 영감이 밭살머리스러웠듯이 이제 주인아씨의 이자로 소두 한 말
쌀이 덧문은 곡식섬을 지고 가는 제 아버의 말조차 인정머리없이 쏘아 던지고 가는 꼴이 몹
시 밭살머리스러웠다.*

수탈구조 - 소작료, 물세, 비료 값, 장리쌀 원곡 및 이자

생존위해 결국 다시 쌀을 빌리고 가을에 모두 빼앗기는 수탈의 악순환

역쇠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노비로 지주의 이익에 편승하면서도 오히려 지주-소작인 간의 모순적 구조를 인식

주인집의 명령이라며 거침없이 쌀가마를 지고 가는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표출

- 자기부정을 통한 역쇠의 의식이 성장한 결과

(4) 율판서택의 몰락과 노비해방의 역설

토지자본에 의존한 율판서택의 몰락

- 일본 공산품의 유입과 문명의 이기를 통한 과도한 소비 생활 증가
- 공정가격제를 통한 쌀값과 땅값의 통제 → 토지자본의 몰락 유도

고리대금업자 권생원에게 토지 매매

율판서택의 몰락으로 천서방과 역쇠 부자는 노비에서 해방

- 노비 신분해방은 자유가 아니라 가난한 소작인이 되는 길을 의미

황군수 일당의 농간으로 땅 구입 좌절 - 권생원의 소작인

내 생전엔 너일 데리구 있잔 노릇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었나!”

노마님이 눈을 섬벅거리는 것을 보기가 바쁘게 역쇠 아버지는 대뜸 흐득흐득 느껴 울었다. 역쇠 생각에는 이런 앓던 이 빠지는 노릇은 다시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째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럴 줄 알었으면 땅 넘어가기 전에 단 몇 마지기라도 너의 몫을 남겨 놓았을걸…….”

하고 노마님은 목이 메어 다시 말을 멈춘다.

역쇠 아버지는 그만 아이처럼 엉-엉 울어 버린다. 역쇠는 저만 눈이 말뚱한 것을 쳐들기에 겁이 났다.(217)

“싫사와요, 마냄 곁을 떠나 어떻게 따루 살아와요! 굶어두 마냄 모시다 죽지 어디루 따루 나가와요! 죽어도 싫사와요…….”

하고 역쇠 아버지는 또 킬킬 울었다.(217-218)

그러나 결국 역쇠 부자는 어미는 일생이요 아버도 거의 일생이요 자식은 철나도록 세 식구가 종살이를 한 대가로 돈 사백 환과 문짝도 없는 사 간짜리 깍지방 한 채를 얻어 가지고 처음 제 살림을 차려 보려 가재울로 내려왔다.(218)

역쇠 부자의 노비 해방은 표면적으로는 봉건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의미
자본가로 대체된 지주의 소작인이 됨으로써 자본주의에 구속되는 현상
자유인의 아이러니

가재울의 사람들의 우호적 환대

- 역쇠의 호가호위에 대한 용서

- 농촌의 인심

- 소작인들 간의 연대의 불씨를 남겨두는 소설적 장치

특특히 지주 노릇을 하려고 드는 권생원의 악행

- 고리대금업자와 지주를 겸하는 권생원의 위세는 이전 윤판서댁보다 더 심해짐
- ㅅ자본가이자 ㅅ지주인 권생원 - 지주와 자본가로서 수탈
- 김장, 눈치우기 등 각종 노역 봉사를 요구

‘권생원은 지주인 것뿐 아니라 채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날 지주 윤판서댁 나릿님에다 전날 돈놀이 권생원 자신을 합친 세도를 쓰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박하기는 더했다.’

(5)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농업노동자의 현실

권생원의 패악에 많은 소작인들은 동양척식회사의 땅을 부치는 길을 선택

- 동양척식회사(이하 동척)는 지주들의 소작보다 좋은 조건으로 농민들과 소작 계약(7:3 →6:4)
- 농민들은 추수철이 되어서야 허울뿐이었음을 깨달음
- 평균치로 생산량을 산출하는 ‘쓰보가리(坪割法)’ 방법의 함정(곡식 건조 시기에 따른 농민의 손해)
- 농민들은 연대하여 동척에 항의, 동척은 미봉책으로 의견수용하는 척함

동척의 횡포

- 다음해 재계약할 때 미수금 청구
-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불가
- 농민들은 억지로 일본식으로 개명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결합

친일파의 횡포 - 황군수 일당

- 도조 도쿠지로 개명, 면장으로 부임, 앞잡이 이용하여 농민들 괴롭힘
- 무단 취식, 농민 재산(닭, 곡식 차출), 징병·징용 면제 및 유예를 이유로 비리 행각

억쇠 부자는 친일파 면장의 계략으로 집을 빼앗김

- 억쇠는 면장집에서 무보수 머슴살이
- 억쇠아버지는 보국대에 끌려가 병으로 사망

노마부자의 징용, 징병 면제를 핑계로 분이를 겁탈 시도

- 억쇠의 분노, 분이 구출, 억쇠는 마을을 떠나 도망침 - 해방 후 귀향

(6) 토지 소유 문제와 갈등의 획일화

억쇠의 인생 - 율판서택 노비 → 권생원의 소작인 → 동척의 농업노동자 → 조 면장의 무보수 머슴
지주, 半자본가 半지주, 식민지 수탈기구, 친일파면장(도조 도쿠지)들의 지배
신분은 달라도 결국은 땅주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 <농토>에서 모든 문제는 토지 소유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귀결

소작인들의 현실 체념

언론에 조그맣게 언급되는 소작쟁의

최성필과 사회주의자의 등장과 농민들의 연대 -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고초

3. 긍정적 인물을 통한 갈등의 해소

(1) 사회주의 사상과 의식의 성장

최성필의 영향

- 현실의 문제 및 올바른 모습 인식
-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적 인식
- 토지개혁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

토지개혁과 지주계급의 해체

- 무상몰수 무상분배, 경자유전
- 지주-소작인 간의 봉건적 신분질서 해체를 위해 지주 계급 타지역으로 강제 이주
- 착한 지주에 대한 구제 논의 - 안과부덕 사례

(2) 분이와의 결혼과 미래의 전망

해방이후 귀향한 억쇠와 분이의 결혼

도조 도쿠지에게 빼앗긴 집과 텃밭을 인수한 억쇠

토지개혁의 원칙에 대한 숙지

안과부댁 사례 에서 대의를 위해 원칙론 강조

면 인민위원으로 선출

(3) 북한의 토지개혁

1942년 당시 북한 지역의 소작지 비율

- 논 64.3%, 밭 49.6%

북한 지역의 총 농가 가운데 4%에 불과한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58.2%를 차지(1945년 통계)

농가호수의 56.7%에 달하는 빈농들은 총 경지면적의 5.4%만을 차지

해방이후 북한지역에 인민위원회 결성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령> 발표

3월말 토지개혁 완료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으로 마무리

<농토>에서 나타난 북한의 토지개혁 원칙

-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의 기본 원칙

-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뿐 아니라 지주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려는 토지개혁의 의도를 잘 형상화

- 지주 권생원의 집을 학교로 활용

→ 북한의 토지개혁은 단순히 농토를 분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봉건제의 폐해를 탈피하고 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작품을 통해 형상화

토지개혁 법령에 의한 몰수대상 토지(김주환(1989), 287쪽)

1. 일본 국가, 일본인 및 일본 단체 소유지
2. 조선 농민의 반역자, 조선 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제의 정권기관에 협력한 자의 소유지 또는 일본 압박 밑에서 해방될 때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의 소유지(이상 법령 제2조)
3. 5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4. 자경하지 않고 전부 소작 주는 소유자의 토지
5. 면적에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토지
6.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성당, 사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이상 법령 제3조)

토지를 분배받는 순위 - 고용농,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타군에서 자경을 원하는 지주) 순

토지의 분배방식은 공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수제를 채택

Gender (성별)	Age (연령, 세)	Point (토지점수, 점)
Man (남)	18~60 years old	1
Woman (여)	18~50 years old	1
Young Man/Woman (청년 남녀)	15~17 years old	0.7
Boy & Girl (남녀 어린이)	10~14 years old	0.4
	Under 9 years of age (9세 이하)	0.1
Old Man (남자 노인)	61 years of age or older (61세 이상)	0.3
Old Woman (여자 노인)	51 years of age or older(51세 이상)	0.3

5. 결론

이태준은 『농토』를 통해 억쇠라는 한 인물이 노비에서 소작농, 농업노동자, 머슴 등 봉건제도의 희생자에서 토지개혁의 주체가 되는 농민으로 성장한다는 서사를 통해 북한의 토지개혁의 의의를 밝히고 있음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갈등 구조를 단순화시켜 현실의 모순을 강화하고 갈등을 하나의 문제로 귀결시켜 선명하게 부각시켰지만 갈등을 획일화했다는 단점

사회주의 체제의 토지개혁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낙관성을 보여주는 서술의 한계

참고 문헌

* 텍스트

이태준(2001), 『소련기행 · 농토 · 먼지』, 깊은샘.

* 참고 논저

김성보(2011), 『북한의 역사 1』, 역사비평사.

김은정(2002), 이태준의 『농토』론, 『상허학보』, 9, p.161-189.

김주환(1989), 해방 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김남식외7명, 『해방전후사의 인식5』, 한길사.

박은태(2004).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세계관의 변모 양상. 『현대소설연구』, (21), 117-140.

박은태(2005). 이태준의 『농토』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7(0), 89-112.

신사명(2005). 초기 토지개혁 과정의 사회주의적 인간형 연구 - 이태준과 이기영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6(0), 185-211.

유임하(2015).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의 장소감각. 『돈암어문학』, 28(), 323-351.

유인호(2004). 해방 후 농지개혁의 전개 과정과 성격, 송건호 외 11명, 『해방전후사의 인식 1』, 초판, 1980, 개정3판, 한길사.

이우용(1990). 이태준의 『농토』에 나타난 인물성격 연구, 『건국대대학원 논문집』 30.

정종현(2009). 탈식민지 시기(1945~1950) 삼팔선 표상의 지정학적 상상력 - 해방 후 이태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9(0), 423-460.

장성규(2006).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 - 오스키 사카에,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그룹,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137-16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하신애(2020). 개혁의 맹점과 도덕적 공동체의 부재 - 해방기 북한 문학의 토지개혁 형상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84(0), 325-349.

오양진(추계예대)

<해방 이후 북한의 토지개혁과 소설적 형상화-이태준 <농토>를 대상으로>는 해방 직후 감행된 북한의 토지개혁을 다룬 이태준의 장편소설 <농토>의 서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피식민 사회인 조선에서 유지되고 강화되어온 지주-소작인 간 생산관계의 봉건성을 더욱 왜곡합니다. 하여 조선 사회가 근대화되고 있었음에도 농민들은 지주에 대한 노예적 굴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을 내면화한 근대적 인격이 되지 못한 것인데, 소위 '반봉건적 생산관계'라 할 수 있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개혁의 요청은 불가피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 그 요청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른 급진적 토지개혁으로 나타납니다.

양윤모 선생님에 따르면, 이태준 <농토>는 “북한 토지개혁의 정치적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소설입니다. 말하자면 “이태준은 <농토>를 통해 억쇠라는 한 인물이 노비에서 소작농, 농업노동자, 머슴 등 봉건제도의 희생자에서 토지개혁의 주체가 되는 농민으로 성장한다는 서사를 통해 북한의 토지개혁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태준은 <농토>를 통해 토지개혁을 기점으로 한 북한 상황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주제, 즉 억쇠의 의식적 성장과 급진적 토지 개혁의 정당성을 선명하게 구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제의 선명성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이 양윤모 선생님의 생각인 듯합니다. 서사적 차원에서 인물 간의 갈등은 주제 형성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태준 <농토>의 경우 그 갈등은 “이법적 대립 구조” 위에 단순화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프로파간다 문학의 일종이 되었다는 것이 선생님의 최종 결론으로 보입니다. “사회주의적 낙관성”과 결합된 그러한 “서술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가가 주어야 하는 것은 통상 단순한 처방전이 아니라 복잡한 골칫거리이기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농토>에서 “안과부네의 경우”에 주목하신 것도 아마 그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안과부네는 자수성가하여 땅을 사고, 소작을 주었지만 소작인과의 관계가 좋았음에도 몰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예외적으로 원주인의 소유를 허용 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토지개혁이라는 큰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억쇠의 주장에 결국은 원칙대로 몰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맙니다. 이태준 <농토>가 이른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속한다는 양윤모 선생님의 짐작은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소설가 이태준은 그렇게 ‘형상화’해야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태준은 사회주의자가 된 것일까요? 이태준은 <달밤>과 <돌다리> 등의 작가였지 않습니까? 그의 내면 안에는 노인과 여성, 그리고 민족 등 식민지 근대화의 왜곡 속에서 신음하거나 고통받던 존재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있지 않았던가요? 그 격차가 너무도 큰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저뿐인가요? (반)근대적 문화주의자가 어떻게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몸바꾸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몸은 그렇다 쳐도 ‘맘바꾸기’가 가능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A Brief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China and the Enlightenments from Korea's Policy

발표자: 맹상기(강남대)

토론자: 박범기(한독교육복지연구원)

〈2021-상반기 융합인문학회 학술대회〉

A Brief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China and the Enlightenments from Korea's Policy

--Focusing on Shandong Province

- 맹상기(주저자, 책임발표):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김근홍(교신저자):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강은희(공동저자): 호호발달 연구소 소장
- 서경원(공동저자): 사회보장정보원 행정5급
- 이송희(공동저자):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청 팀장
- 이순덕(공동저자): 평택 꿈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to the Initiation of China's LTCI Policy

III China's LTCI Policy Pilot Program

IV Conclusion

Introduction

China's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pilot program is the largest policy product for addressing the Chinese government's need to face the problem of an aging society, and simultaneously reflects China's strategy of promoting the performance of services that provide care to the elderly and disabled.

Since the early 1960s, The encouragement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to create a massive population lasted until the late 1970s. With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the issues of food, education, medical problems became more and more severe. The One-Child Policy was designed to deal with these issues and was first implemented in 1979 . The One-Child Policy worked effectively in the short- term, but has already generated many negative effects. This has resulted in an aging society, empty nests, and imperfect mechanisms of providing services to the elderly and disabled, which have become huge challenges to bo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society.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to initiate an efficient and sustainable LTCI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developing China's social security sector and society, and new initiatives, such as the LTCI pilot program, have been facilitated by drawing on lessons from foreign examples, such as Korea, in order to consider policy adaptation in China.

Korea's LTCI has produced significant achievements in social reform since 2008. Korea's LTCI is an effective and precise system that covers financing, beneficial terms, cost control, quality assurance, and other aspects. It has effectively reduced nursing pressures for residents and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Due to the similar demographic structure and culture of providing care to family members, Korea's LTCI has become a useful point of reference in the field of providing care to the elderly and disabled. Furthermore, its LTCI has achieved positive outcomes because it incorporates dynamic variables during the management process to adjust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China and Korea's aging societies (Table 1). First, when Korea and China initiated LTCI, the demographic structures of the two countries were similar.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aged over 65 was 10.2% when Korea's LTCI was introduced in 2008, while it was 10.8% in China in 2016. Second, China and Korea share a traditional filial piety culture, and the family is the main body providing care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Third, both China and Korea were in a transition period of their welfare system's reform when they introduced LTCI into their social security sectors.

Finally, the main aim of establishing LTICIs in both Korea and China was to fulfill the development needs of the social security sector and society.



Table 1.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policy in Korea and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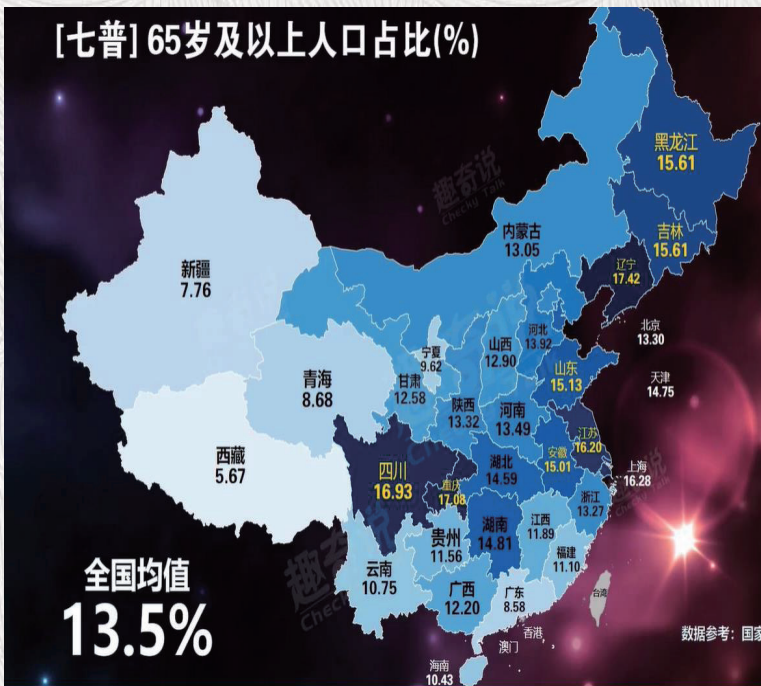
Feature	Korea	China
Formation	2008	2016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aged over 65	10.2% (2008)	10.8% (2016)
Main care provider	Family	Family
Welfare stage	Deflation period	Transitional period
Reason	Social relief and aid to aging society	Social relief and aid to aging society
Implementation	Legislation	Policy pilot

Source: Compiled by the authors





Background to the Initiation of China's LTCI Policy



In 2000, China had the largest population in the world at more than 1.3 billion, which reached 1.4118 billion by the end of 2020. According to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 had 190 million people aged over 65, accounting for 13.5% of the total population by the end of 2020.

Against this aging population background,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ho are disabled, empty-nesters, solitary, or have various chronic diseases is increasing. There is a need to provide elderly people with long-term care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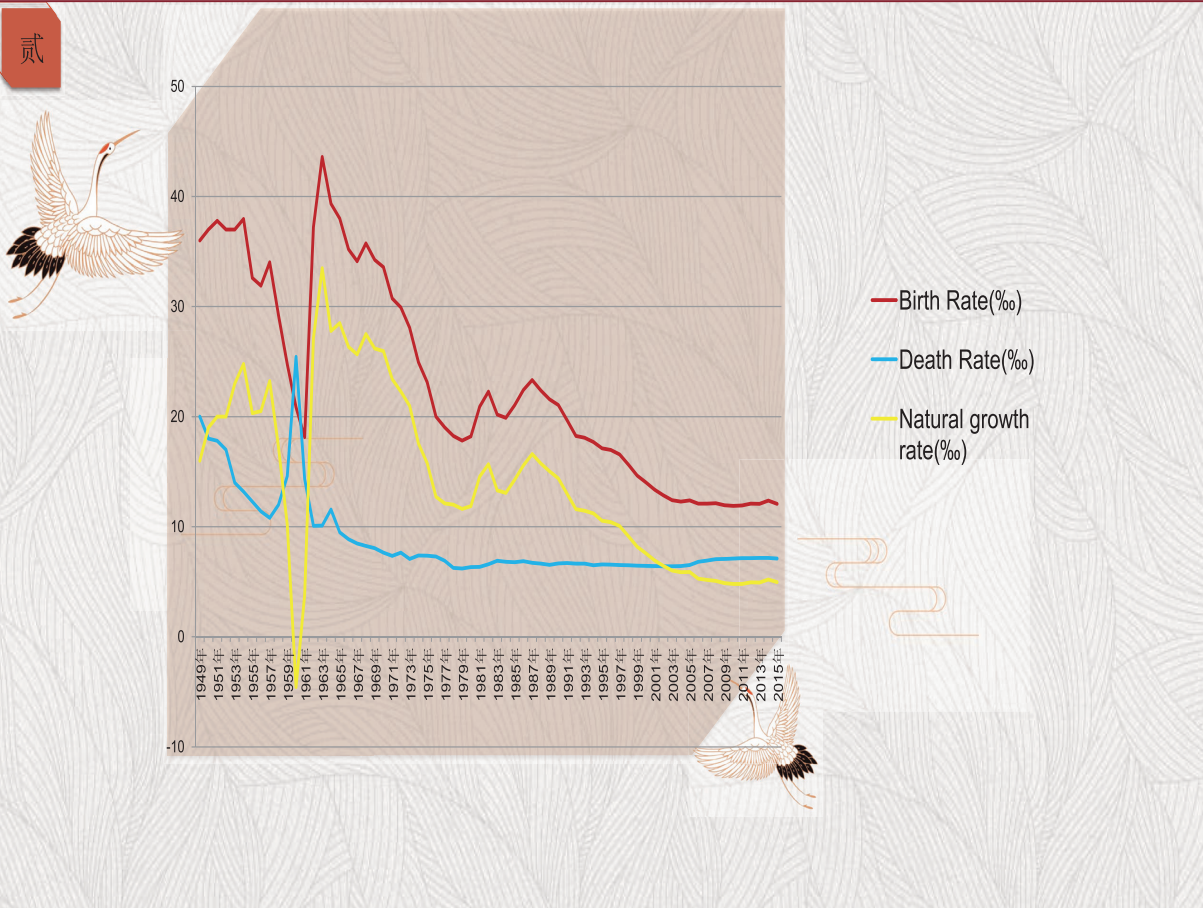
Aging Problems and Family Issues

In traditional Chinese culture, the family unit usually carries most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family member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urbanization, LTCI is a new policy instrument that has replaced and addressed the family function in managing aging problems and social security concerns.

There are nearly 40 million disabled and partially disabled elderly people in China, including nearly 10 million completely disabled elderly people. The increasingly severe aging of China's population is in line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nursing, and long-term care initiatives. The absence of technical experience in China necessitates learning from overseas examples. However, the situation has been exacerbated by the One-Child Policy, new demographic patterns, and a cultural shift.

The One-Child Policy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first generation of Chinese political elites and policy-makers believed that a large population would provide sufficient labor to build a new China. However,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led by Deng Xiaoping, thought that over-population and surplus labor was leading to unemployment, shortages in food and clothes, and the underdevelopment of the economy. Hence, Deng's administration initiated the One-Child Policy in 1978, which aimed to limit the population to below 1.3 billion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n the short term, the policy greatly improved economic conditions and alleviated the disparity between China's population and the available resources. It also potentially facilitated a kind of economic boom that has promoted China to being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However,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One-Child Policy have accumulated long-term adverse impacts on Chinese society.



One of the main negative consequence is the resulting aging society in China: From 2022 to 2035, China will face a serious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with an annual net increase of 11.52 million and a 3.41% annual growth rate. The total number of elderly people will reach 420 million by 2035. Nowadays, the children of the first generation of the One-Child Policy represent the main force of Chinese labor, and their parents have retired and are in a period of ill health. Due to the increasing life expectancy, they must provide support and care for their parents and possibly their grandparents. This is called the “4-2-1” problem. This suggests that one child must provide care for at least two older people in their family. This has placed Chinese society and youths at serious risk regarding the physical, mental, and financial burdens of providing care to the disabled and elderly, especially in rural areas, where the elderly relies heavily on their families.

New Demographic Patterns

Nowadays, children are no longer able to provide care to their parents, as was done traditionally, due to population mobility, which includes work, immigration, and marriage. China’s urbanization process is still experiencing a period of rapid development. Therefore, large-scale population mobility will remain a remarkable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for a long time.

Furthermore, women, who were traditionally the main care providers to the elderly and disabled at home, currently represent the majority of modern labor. Moreover,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since the foundation of the PRC due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improvement of medical conditions. In 1953, the life expectancy of men was 42.2 years, and 45.6 years for women. In 2018, it reached 73.6 years for men and 79.4 years for women, almost doubling in the past 50 years. In summary, new demographic patterns, including population mobility and increased life expectancy, have had a prominent influence on the introduction of LTCI in China.

China’s LTCI Policy Pilot Program

Therefore, the WHO stated that China needs to establish a long-term care initiative to tackle the issue of providing care to the elderly and disabled.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for solving these problems and can satisfy the needs of the elderly and reduce the economic burden on both the social security sector and families.

To establish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improve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sector in China, the lessons and experiences of the healthcare sectors from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become a major source of learning for the Chinese government. The pilot program of China's LTCI was launched by the MHRSS on 27 June 2016, that the competent bodies decided to "implement polici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services for older persons" and to establish "a long-term care system that brings together insurance, social well-being and social assistance components" (*Xinhuanet*, 2016).



Fifteen cities across China were chosen as pilot sites (see Table 2). Since its implementation, the pilot program has enhanced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security sector in relieving the problem of providing care to elderly and disabled people, while it has developed the capacity of the MHRSS in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NGOs in the social welfare industry. In sum, the LTCI initiative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odernizing China's social security sector, although serious problems remain.



Table 2. *Pilot cities for LTCI*

City	Province	Region	Population	GDP per capita (CNY)
Chengde	Hebei	North	3,500,000	38,500
Changchun	Jilin	Northeast	8,540,000	95,700
Qiqihar	Heilongjiang	Northeast	5,500,000	23,000
Shanghai	Shanghai	East	24,200,000	135,000
Nantong	Jiangsu	East	7,300,000	128,000
Suzhou	Jiangsu	East	10,720,000	174,000
Ningbo	Zhejiang	East	8,000,000	123,000
Anqing	Anhui	East	4,600,000	31,000
Shangrao	Jiangxi	East	6,700,000	24,600
Qingdao	Shandong	East	9,500,000	124,000
Jingmen	Hubei	Centre-south	2,900,000	48,000
Guangzhou	Guangdong	Centre-south	15,300,000	156,400
Chongqing	Chongqing	Southwest	31,000,000	75,800
Chengdu	Sichuan	Southwest	16,300,000	94,800
Shihezi	Xinjiang	Northwest	380,000	132,900

Notes: The cities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ir order in the "Guiding Opinions", which defines their legal base. China is divided into five regions, North (dominated by Beijing), Northeast (previously, an area of heavy industry), East (dominated by Shanghai), Centre-South (dominated by Canton-Hong Kong), Southwest (previously rural, undergoing rapid development), Northwest (rural, relatively less developed).

Source: Compiled by the authors.



Pioneer among the pilots--Qingdao



In 2012, Qingdao (9 million inhabitants) was the first city in China to launch long-term care insurance at the municipal level. Coverage included salaried employees and urban residents under the basic medical insurance system. In January 2015, it was extended to residents of rural areas under the new cooperative scheme for rural health care (Yi, 2018).

Funding comes from several sources: 20 per cent of the accumulated balance of the health insurance fund for urban salaried employees, contributions of up to 0.5 per cent of the accumulated pooled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urban employees), and 0.2 percent of the amount of individual accounts (Qingdao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2018).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asic medical insurance system for urban and rural residents, the funding source is 10 percent of the total health insurance fund. The municipality cover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Yuan, 2013) in addition to providing overall and per capita municipal grants (Deng and Guo, 2015).

Five types of long-term care services are covered by the insurance systems:

- home medical treatment;
- residential medical treatment;
- medical treatment in geriatric wards;
- periodic mobile medical examination;
- in 2018, an essential daily care service was included in the programme for severely disabled older persons suffering from severe dementia or mental disorders (Zhang and Yang, 2019; Qingdao Social Security Bureau, 2018a). The beneficiaries are those whose disability affects their daily living activities.



Table 3. Benefits for different categories of services cover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in Qingdao

Type of service	Payment limit ^{c,d}			
	Tertiary hospital	Secondary hospital ^{c,d}		
Medical care in the geriatric ward	CNY 210/day	CNY 180/day ^{c,d}		
Residential medical care	CNY 65/day ^{c,d}			
	CNY 50/day for day medical care provided to older persons with severe dementia in institutions ^{c,d}			
Medical care at home	CNY 50/day ^{c,d}			
Periodic mobile medical inspection	Urban employees	Level 1 scheme for residents	Children and students	Level 2 scheme for residents ^{c,d}
	CNY 2,500/yr	CNY 2,200/yr	CNY 2,200/yr	CNY 1,500/yr ^{c,d}
Daily essential care (scheme for urban employees only)	Establishments and geriatric and facilities	Level 3	Level 4	Level 5 ^{c,d}
		CNY 660/mo	CNY 1,050/mo	CNY 1,500/mo ^{c,d}
	At home or mobile	Level 3	Level 4	Level 5 ^{c,d}
		3 hrs/wk at CNY 50/hr	5 hrs/wk at CNY 50/hr	7 hrs/wk at CNY 50/hr ^{c,d}

Note: Home care provided by institutions for elderly people with listed mental disorders covered by long-term care programmes is paid for up to 60 days per year.

Source: Compiled by the authors.



The amounts paid by the dependency insurance differ according to the different categories of services provided (Table 3). The reimbursement rate for service charges varies between 70 per cent and 90 per cent (Qingdao Social Security Bureau, 2018a).

In 2015, th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ystem was delegated to the State commercial insurance company PICC Health Insurance, creating a new model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enterprise in the field of social insurance. Social enterprises and private medical care facilities supply the bulk of long-term care servic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home care, which accounts for 89.6 per cent of all types of care provided. Nearly 700 facilit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help provide long-term medical care in Qingdao, of which 90 per cent are from the private sector and provide 98 per cent of long-term medical care services. The city employs almost 15,000 service providers to this end (Ping, 2018).

Table 4. *Financial provision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in Qingdao*

	Initial allocation	Urban employees	Urban/rural residents	Municipal grant	Additional grant ⁴⁾	Total estimate
Qingdao	20% from the account balance, medical insurance	0.5% from the pooling plus 0.2% from the individual accounts	10% from the resident medical insurance funds	CNY 20 M from the public well-being fund + 100 M over 5 years of the social lottery	CNY 30/yr/urban ⁴⁾ CNY 50/yr/resident ⁴⁾	CNY 1.5 billion

Widening of the pilots

A nationwide pilot campaign on promoting and experimenting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was launched in 2017. This was done on the basis of the rich experience of the pioneer cities with regard to financing, the definition of benefits and conditions for the granting of benefits, insuranc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the provis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tc.

By June 2018, some 57 million participants¹⁵ were cover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On 6 May 2020, the National Healthcare Administration, the body which in 2019 took over for health insurance management from the Ministry in charge of social security, launched an appeal for comments¹⁶ from specialized circles on a project concerning "Guidance for the expansion of the pilot programme on th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National Healthcare Security Administration, 2020a).

In addition to the 15 pilot citi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Shandong and Jilin provinces were also designated as "main liaison provinces" for the design and practice of a pilot proje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In addition to Qingdao (Box 1 illustrates the assessment process for eligibility for coverage in Qingdao), four cities participated in pilot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in Shandong: Dongying, Liaocheng, Weifang and Rizhao, which benefited from Qingdao's experience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ir own socioeconomic situation.



Box 1. How it works

The example of Qingdao, the “pioneer” among the pioneers, illustrates how the assessment for eligibility for coverage is performed:

- Beneficiaries in a situation of dependency submit a coverage request to the care/accommodation institutions.
- After a brief evaluation, the institutions refer the request to an accredited evaluating organization.
- The evaluation must be performed within 20 days. A written evaluation is undertaken, based on a visit with the person in the presence of a third party.
- The evaluation is then submitted to a Commission, which decides on eligibility for coverage for a period of six to twelve months, after which a new evaluation must be performed.

Source: Qingdao Social Security Bureau (201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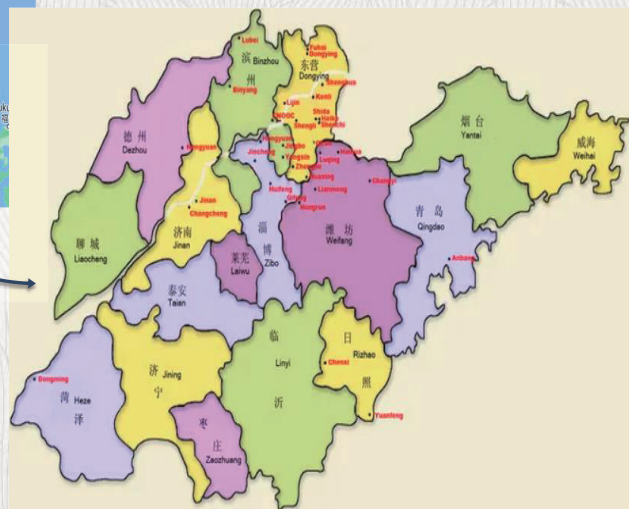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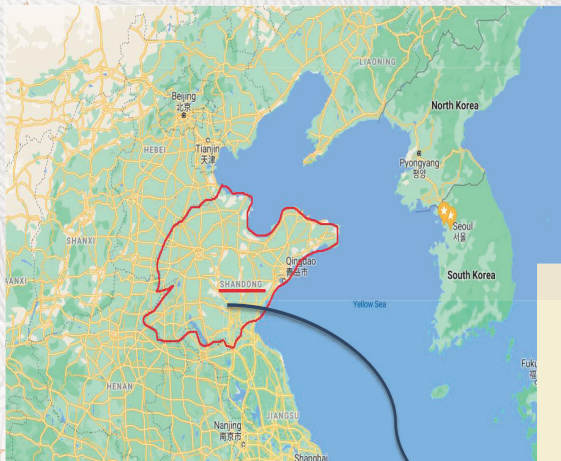


Table 5.
socioeconomic
situation of cities in
Shandong province.

City	Population (thousand)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aged over 65(%)	GDP per capita(USD)
Jinan	9,202	14.07	15975
Qingdao	10,072	14.20	17847
Zibo	4,704	16.50	11327
Zaozhuang	3,856	13.70	6507
Dongying	2,194	15.51	19729
Yantai	7,102	18.12	15955
Weifang	9,387	15.81	9063
Jining	8,358	14.42	7791
Tai'an	5,472	15.62	7330
Weihai	2,907	19.26	15030
Rizhao	2,968	16.03	9791
Linyi	11,018	14.12	6320
Dezhou	5,611	15.32	7954
Liaocheng	5,952	13.97	5643
Binzhou	3,928	15.98	9249
Heze	8,796	14.25	5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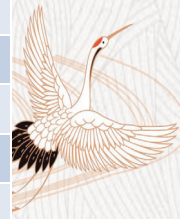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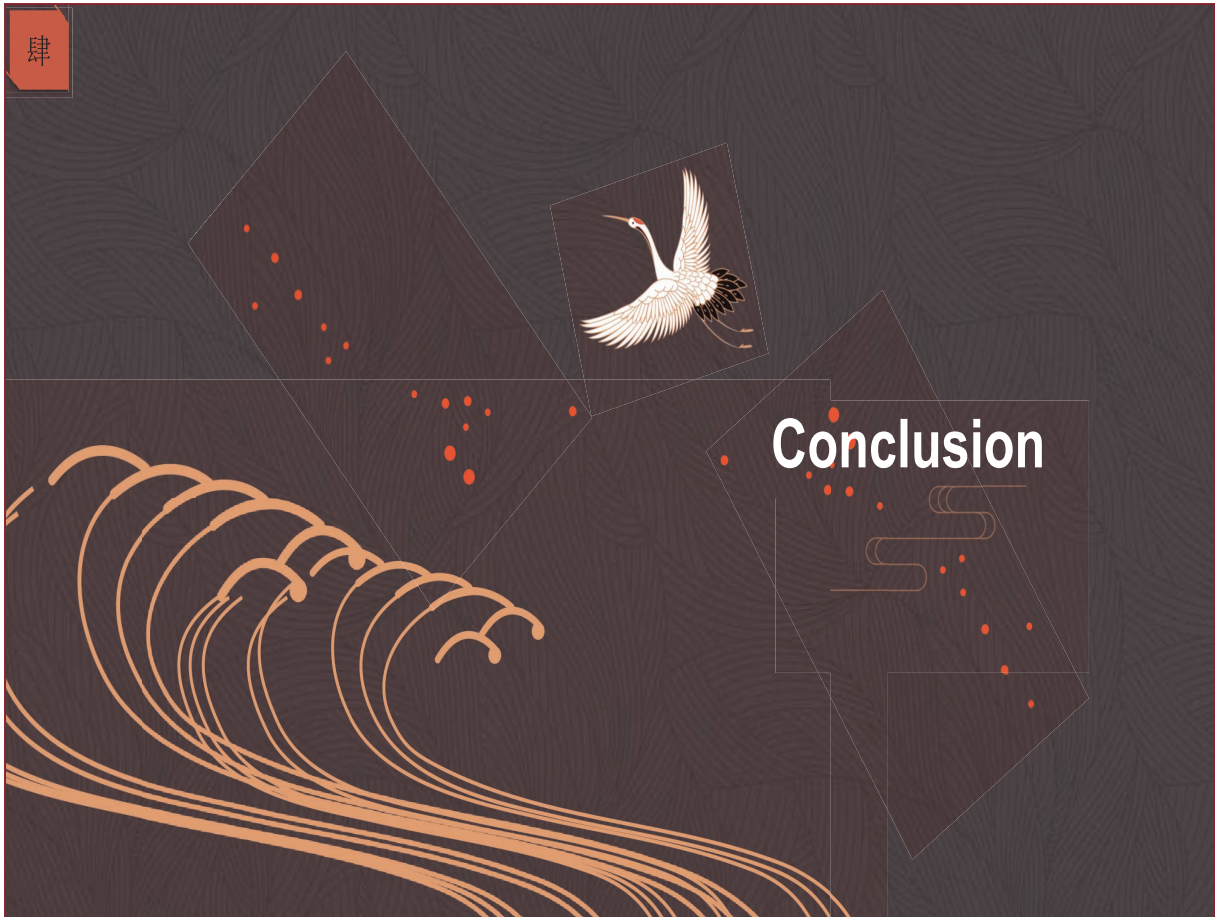


Table 6. LTCI financial and benefit policies of cities in Shandong province.

City	Financial provisions		Benefits	
	Personal premium	Government subsidies	Co-insurance	Payment limit
Jinan	Ad hoc	/	/	220~260cny/d Medical care 60~70cny/day Residential care
Qingdao	See Table 4.		See Table 3.	
Zibo	35 CNY/year	75 CNY/year	25%	1600/1200/800CNY/mo
Zaozhuang	0.1% contribution rate	60 CNY/year	20%~30%	60~80cny/d Medical care 30~40cny/day Residential care
Dongying	Beneficiaries only, 100~150CNY/mo	100~150CNY/mo	35%~40%	/
Yantai	Ad hoc	/	10%	150~210cny/d Medical care 30~50cny/day Residential care
Weifang	0.1% contribution rate	/	4%~10%	120~200cny/d Medical care 50~60cny/day Residential care
Jining	30 CNY/year	70 CNY/year	10%~20%	120~200cny/d Medical care 40~90cny/day Residential care
Tai'an	30 CNY/year	45 CNY/year	15%~25%	120~200cny/d Medical care 40~60cny/day Residential care
Weihai	30 CNY/year	70 CNY/p/year +200M/year	/	200cny/d Medical care 30~40cny/day Residential care
Rizhao	30 CNY/year	20 CNY/year	40%	140~200cny/d Medical care 50~60cny/day Residential care
Linyi	30 CNY/year	70 CNY/year	15%~20%	/
Dezhou	45 CNY/year	65 CNY/year	15%~25%	30~180CNY/d
Liaocheng	0.1% contribution rate	0.1% contribution rate+20CNY/year	25%	/
Binzhou	0.1% contribution rate	0.2% contribution rate+15CNY/year	10%	45~70CNY/d
Heze	40 CNY/year	55 CNY/year	10%~20%	120~170cny/d Medical care 40~60cny/day Residential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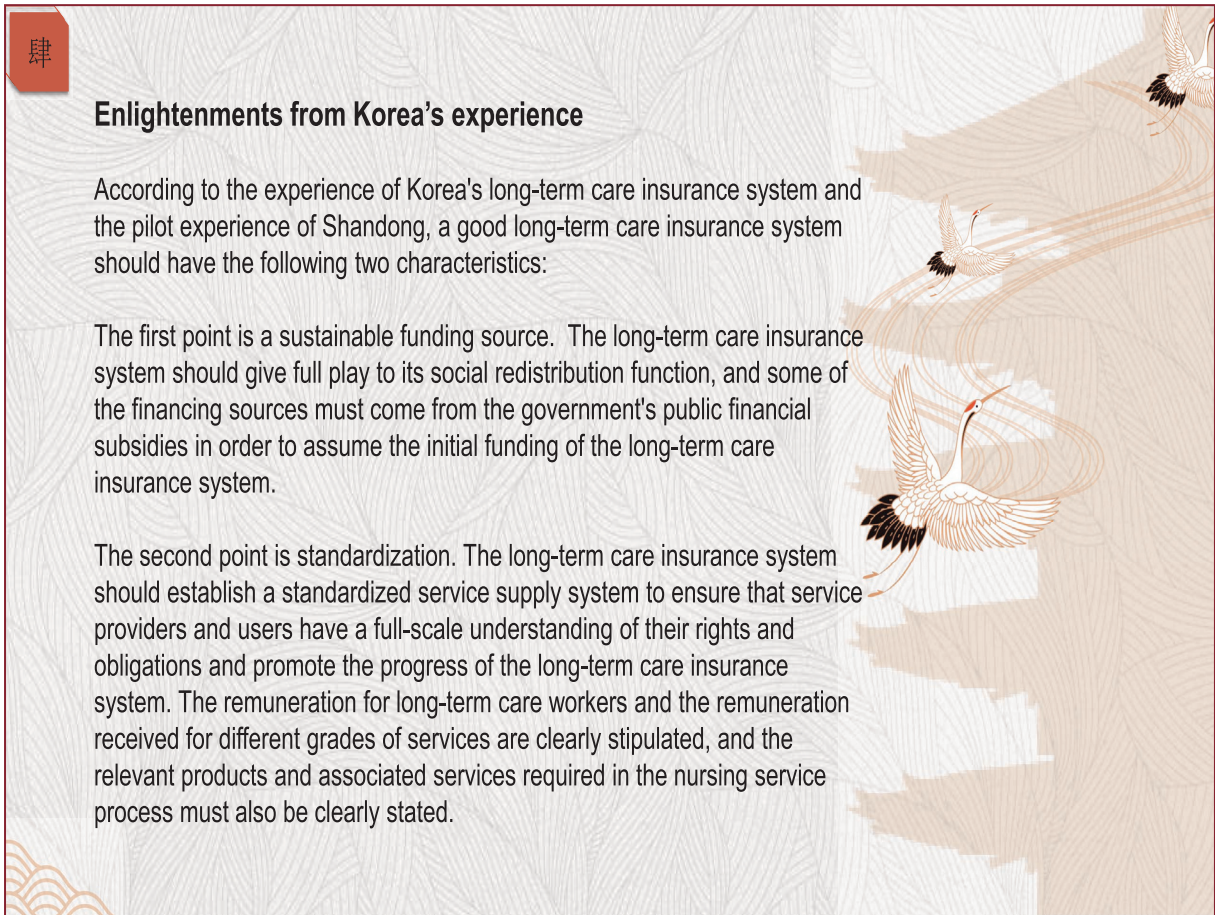


Enlightenments from Korea's experienc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pilot experience of Shandong, a good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hould have the following two characteristics:

The first point is a sustainable funding sourc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hould give full play to its social redistribution function, and some of the financing sources must come from the government's public financial subsidies in order to assume the initial funding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second point is standardizati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hould establish a standardized service supply system to ensure that service providers and users have a full-scale understanding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nd promote the progr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remuneration for long-term care workers and the remuneration received for different grades of services are clearly stipulated, and the relevant products and associated services required in the nursing service process must also be clearly stated.



Problems and solutions

The pilot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s were quickly expanded to all cities across Shandong, laying a solid foundation for possible general geographic and personal coverage.

Health insurance appears to be the predominant funding source for the schemes. This may create some difficulties with regard to sustainability. Whereas the cost of modern medical treatment is outstripping wages in China as elsewhere:

The assumed objective is to obtain 70 percent or 80 percent financial coverage for the care and services provided, often within a nominal limit whose indexation cannot be taken for granted. Consequently, the beneficiaries' uncovered remainders are potentially significant for recurrent benefits meant for population groups that often have only modest income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pilots were launc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while responsibility for medical insurance has since been transferred to another recently created body, the National Healthcare Administration. The latter entity needs to develop its institutional capacity for long-term care management but has already demonstrated its leadership in this area, with the launch of the second cohort of pilot cities in the second half of 2020.

Another doubt pertains to financing. In view of the fact that social insurance systems are currently under pressure to reduce contribution rates, the launch of a new independent nationwid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that would need to raise additional funds seems unrealistic, at least in the short run.

Finally, the shortage of long-term care infrastructure and staffing remains a challenge fo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programs, especially in rural areas.

These obstacles and uncertainties, however real and well-founded, have not been viewed as an obstacle to continuing and scaling up the experiment. Indeed, in October 202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dopted the “Proposal for the Formulation of the 14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and the Long-term Objectives for 2035” (ILO, 2020), which includes a commitment to gradually establish a nationwid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References

- Yuan, Z.G.; Song, Z. Demographic rate, pension system and saving ratio in China. *Econ. Study* 2000, 11, 45-52. (In Chinese)
- Blondeau, J.; Dubois, D. Financing old-age dependency in Europe: Towards overall management of old-age. *Geneva Pap. Risk Insur.* 1997, 22, 46-59.
- The Decline in Fertility Rates in China. Available online: http://www.gov.cn/gzdt/2007-01-11/content_492377.htm. (In Chinese)
- Liu, S.H.; Yang, J.W.; Zhang, Y.J. The actions and responses to China's aging problems. *Popul. Res.* 1999, 23, 34-41. (In Chinese)
- Wang, Q.; Zhou, Y.; Ding, X.; Ying, X. Demand for Long-Term Care Insurance in China. *Int. J. Env. Res. Public Health* 2017, 15, 6
- Yu, Z.; Senior civil servant in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of Liaoning Province, China. Personal communication, 11 June 2019.
- Xu, Y.; China Academy of Governance. Personal communication, 15 October 2019.
- Zhang, Y.; Marsh, D. Learning by doing: The case of administrative policy transfer in China. *Policy Stud.* 2016, 37, 35-54.
- Dolowitz, D.P.; Marsh, D. Learning from abroad: The role of policy transfer in contemporary policy-making. *Government* 2000, 13, 5-23.
- Carroll, P.; Common, R.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in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Routledge: Oxford, UK, 2013.
- Bennett, C.J. How States Utilize Foreign Evidence. *J. Public Policy* 1991, 11, 31-54.
- Farazmand, A. Governance reform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and the sound: Examining the past and exploring the future of public organizations. *Public Organ. Rev.* 2017, 17, 595-617.
- Wen, Y.Q. Comparison and enlighten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Germany and Japan. *Soc. Secur. World* 2020, 3, 31-32. (In Chinese)
- Dong, K.P.; Renmin University. Personal communication, 23 November 2019.
- CN-Healthcare. 2020. 上海长期护理保险研究报告 [Shanghai long-term care insurance research report], 14 May. (In Chinese).
- Hocquet, J.-Y. 2018. Long-term care in France - In search for a balanced policy. [S. 1], EU-China Social Protection Reform Project.
- Huang, Y.; Zhang, Y.; Zhuang, X. 2019. Understanding China's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s: What is going on? Do they work? and where to go next? (Technical Note). Washington, DC, World Bank.
- ILO. 2020. Social security policy monitor China (September-October, No. 4).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MHRSS. 2017.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开展长期护理保险制度试点的指导意见 [Guiding opinions of the General Office of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on the Pilo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MHRSS Act [2016] 80, 27 June 2016). Beijing,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In Chinese).
- OECD. 2020. Long term care and healthcare insurance in OECD and other countrie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ing, Z. 2018. 国内首部青岛长期护理保险蓝皮书发布 累计支出15 [The first in China! Qingdao long-term care insurance blue book releases cumulative expenditure 1.5 billion], in *Qingdao News*, 11 December. (In Chinese).
- Qingdao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2018. 关于印发青岛市长期护理保险暂行办法的通知 [Notice on issuing the "Interim measur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in Qingdao"]. Qingdao. (In Chinese).
- Qingdao Social Security Bureau. 2018a. 青岛市长期护理保险暂行办法 [Qingdao City long-term care insurance interim measures]. Qingdao. (In Chinese).
- Qingdao Social Security Bureau. 2018b. 关于印发《青岛市长期照护需求等级评估实施办法》的通知 [Notice on issuing the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evaluation of long-term care needs in Qingdao"]. Qingdao. (In Chinese).
- Xinhuanet. 2016. 习近平推动老龄事业全面协调可持续发展 [Xi Jinping: Promote the comprehensive, coordin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ause of aging], 28 May. (In Chinese).
- Zhang, Y. H. 2018. "Chinese experiments to develop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M. Bruni et al., *Population ageing in China: Impact and policy scenarios* (Conference report, EU-China Social Protection Reform Project Conference to mark the 2018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19 September). Beijing.



A Brief Introduction of Long Term Care Insurance in China and the Enlightenments from Korea's Policy : Focusing on Shandong Province 토론문

박범기(한독교육복지연구원)

1. 본 발제문의 주제인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연구에 대해 환영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등의 동아시아국가가 산업사회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재편 및 가족제도의 변동을 유사하게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통의 사회문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 사회문제는 먼저 일본이 후에 한국과 중국이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발제의 주제 키워드인 <중국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한국 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으로부터 알 수 있듯 중국은 한국보다 좀 더 늦게 고령화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도의 핵심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등 제도로서의 기능성이 탁월한 편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한국의 제도로부터의 시사점으로 고민하는 것은 상당한 시의성과 함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본 발제문의 주요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서론, II.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LTCI)도입의 배경, III.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LTCI) 파일럿 정책, IV.결론순입니다. 발제문의 구조는 연구주제의 키워드가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발제문의 구조를 고찰하면 상당히 주제를 잘 보여주는 틀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발제문의 주제키워드는 두가지입니다. <중국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산둥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이 발제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론과 도입의 배경에서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도입이유와 시대적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III.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LTCI) 파일럿 정책을 통해 산둥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파일럿 정책의 시작과 동향을 기술했습니다. 결론에서 한국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및 현재 중국노인장기요양법의 문제와 해법들에 대해 조망했습니다. 이렇듯 발제문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주제를 잘 부각시키는 틀로 구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은 본 발제문의 주요 주제를 구성하는 키워드입니다. 단지 결론 내의 키워드 흐름정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장(章)으로 구성해서 이 장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본 발제문의 서론부터 결론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서론은 논문의 문제의식과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발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제문의 서론에서 중국의 인구변동에 대한 연혁을 기술(記述)하면서 1979년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현재 중국이 처한 저출산고령의 문제까지 논리적으로 서술했다고 봅니다. 이는 연구의 배경이자 문제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부터 교훈이나 시사점을 배울 필요에 대해서도 제도의 취지나 목적, 사회보장정책으로서의 관점에서 설득력있게 서술했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유사점- 인구변동패턴의 유사,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문화, 사회보장영역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존립이유-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정책 으로부터 시사점을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명징하게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2)본 발제문의 II장은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LTCI)도입의 배경입니다. 이 장(章)의 주요 키워드흐름은 1.고령문제와 가족이슈들, 2.한 자녀정책, 3.새로운 인구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절(節)에 해당하는 3가지 키워드의 흐름은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의 배경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 이 발제문을 연구논문으로 업데이트할때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통계나 근거에 대한 출처를 명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론적 배경은 각 절(節)들 간에도 논리적인 흐름이나 관계성을 띄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장(章)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각 절들의 배치나 관계성을 고민해서 재구성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3)본 발제문의 III장은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LTCI) 파일럿 정책입니다. 주제의 키워드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산둥지역을 중심으로>가 구체화된 장입니다. 그런만큼 본 발제문에서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적(pilot) 프로그램에 대한 연혁, 시범적 프로그램의 대표적 15개 도시에 대한 설명, 시범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지역인 -산둥지역의 칭따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프로그램의 중국전지역으로의 확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산둥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파일럿 정책에 대해 무난히 기술했다고 사료됩니다.

4) IV.결론에서는 1.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2. 중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토론자가 상술(上述)했듯 결론의 1부분은 본 발제의 핵심 주제를 구성하는 부분이기에 따로 독립적인 장으로 구성해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결론은 전체 글의 요약과 함의 및 제언들로 구성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차후 본 발제문을 논문으로 전환할 때, 전체글의 요약부분 및 함의와 관련된 부분을 절(節)로 만들어서 내용을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4. 총평을 하면 본 연구의 주제는 상당한 연구가치와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주제와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적인 서술로 쓰여졌습니다. 다만 본 토론자가 상술(上述)한 부분들만 신경을 써서 차후 연구논문에 반영한다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제자분들의 연구에 대한 노고와 학술대회 때 발제하시느라 수고하신 부분 치하드립니다.

5.본 발제와 관련되어 저자들에게 질문을 몇 개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1)첫째로 본 토론자가 적시해서 밑줄 그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둘째로 발제문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 현재 중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난관을 예상한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런 후 다음 문장은 이런 장애들이 실제적으로 난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서술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요?

3)셋째로 저자들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사점으로 덧붙여 이야기할 장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3)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치매국가책임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짧게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십니까?

